

# “빵지순례 1번지’ 전남 특화빵 맛보세요”

### 우리밀·전남산 쌀 등 지역 농특산물 원료로 만들어

### 여수 이순신광장서 관광상품화 촉진위한 판촉행사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특화빵 산업을 육성, ‘빵지순례 1번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선다.

지역 특화빵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빵이 아닌, 지역 업체가 우리 밀, 전남산 쌀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원료로 직접 만든 제과제빵류다.

전남도는 특화 빵 육성계획을 세워 1시군 1특화빵 육성, 빵 개발 및 판촉 지원, ‘빵지순례도’ 제작·배포, 우수 특화 빵 홍보 등을 통해 올해 특화 빵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45여 억 원 늘어난 1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21개 시군 69개 업체에서 90여 지역 특화빵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역 특화빵 관광상

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엠지(MZ)세대를 포함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판촉활동을 펼쳤다.

이날 판촉행사에는 여수 등 9개 시군 16개 업체가 참여할 하였다. 지역 대표 농특산물과 꽃난이 농산물, 과일 생산으로 소비처를 찾지 못한 농수산물 등을 활용해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다양한 특화 빵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주요 판촉 특화빵은 여수 낭만포차에서 판매되는 삼합(돌문어·돼지고기·갯김치)에서 영감을 받아 여수 돌산 갯김치를 소로 사용해 매콤한 맛이 특징인 ‘삼합빵’, 광양 특산물인 대봉감으로 만든 꽃감이 들어가는 은은한 단맛을 내는 ‘광양꽃감빵’, 순천만 절개 가루



를 넣어 새우과자 맛이 나는 귀여운 모양의 ‘절개빵’, 무안 양파가 듬뿍 들어가 아삭하고 단맛이 특징인 ‘양파빵’ 등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특화빵 산업은 소규모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특산물 소비촉진,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웰빙·생태관광지 전남이 특화 빵의 성지이자 빵지순례 1번지로 우뚝 서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 광산구, 공중위생 수준 서비스 최우수 80개소 선정

광주 광산구는 2022년 공중위생 수준 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 8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숙박업소 123개소, 목욕업소 30개소, 세탁업소 168개소 등 총 321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지침에 따라 시설환경 등 40여 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반이 직접 방문해 절대 평가하고 업종별로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숙박업 55개소, 목욕업 4개소, 세탁업 21개소 등 총 80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상위 22개 업소에는 선정 로고 및 문패를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와 미비한 곳은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며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행택 기자

## 광주·전남·북 호남학연구기관 협의회 출범…내일 출범식 개최

산재해 있었던 광주와 전남·북지역 호남학 연구단체들이 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 연구에 나선다.

광주, 전남·북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호남학연구기관협의회’는 30일 오후 2시 30분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호남학 연구포럼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대학, 유관기관, 학회 등 호남지역의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해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상호 학술·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범 호남학 관련 기초연구자료 집적과 발굴, 호남학의 저변 확대 등에 나선다.

협의회는 매년 호남학 연구포럼과 학술행사를 열어 연구결과를 교류하고 활성화에 앞장선다. 협의회 초대 회장은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출범식과 함께 ‘호남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호남학 연구포럼을 진행한다. 축적된 호남학 연구성과와 서울학, 충청학, 영남학 등 타 지역의 지역학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협의회의 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에서는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지역학과 호남학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 하며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이 ‘호남학연구원 60주년 성과와 전망’ 이옥 순천대 교수가 ‘지리산권 문화 연구현황과 제언’, 변주승 전주대 교수가 ‘한국고전학 연구현황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한편 호남학연구기관협의회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문화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북대 이재연연구소,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전북사학회, 호남사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슬비 기자

## 광주시장-시의장, 행감 갈등 17일 만에 ‘화합 메시지’

### “시와 의회는 두 바퀴, 역지사지 필요” “날 선 지적 공직자에 큰 아픔...유감”

제9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감사를 둘러싸고 노조를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나란히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은 “시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역지사지를 강조했고, 시의장은 “시와 의회는 지향점이 같다”고 전제한 뒤 “날 선 지적이 공직자들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이라며 유감과

재발 방지를 공개 표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28일 제312회 임시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 말미에 “시와 의회는 시민 행복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행감 과정의 갈등은 시민 사랑이라는 궁극의 목표 속에 놓여 있는 과정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중중’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이 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하는 관계가 돼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역지사지를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의회는 집행부를 개혁 동반자로 보듬어 주시고, 집행부는 의회의 열

정과 시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분명히 존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창 의장은 40여 건의 안건 상정과 의결, 제안설명 등을 모두 마친 뒤 폐회 선언 직후 “행감 논란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의회 대표 자격으로 발언했다.

정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과 시의원 모두 공직을 맡은 시민들이고 공직수행의 기준과 지향은 두 달 할 것 없이 법과 시민행복”이라며 “다름이 ‘틀렸다’를 의미하지 않듯 서로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치와 행정의 다름도 깊이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감기간 격론 과정에서 날 선 지

적들이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도 열성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찍혔고, 부분이 전체가 돼 버렸다”며 “이 또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시·의정을 살피는데 매진하고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시장과 시의장의 화합의 메시지는 지난 11일 행감 과정에서 고압적 감사 논란 제기된 지 17일 만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 노조 간 ‘행감 갈등’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환 기자

## 11월 전남 전통주에 딸기향 품은 담양 추성고을 ‘티나’

### 딸기·죽력 원료 고급 혼성주...풍부한 맛 으뜸

전남도는 28일 담양의 신선한 딸기와 명품 대나무에서 나온 죽력을 원료로 만든 고급 리큐르주 담양 추성고을 ‘티나(TINA)’를 11월 대표 담양 전통주로 선정했다.

풍부한 딸기향과 맛이 특징으로 탄산수와 얼음 등을 활용해 각테일로 즐기면 달콤한 향의 여운을 깊이 느낄 수 있다. 병 하단부에는 엘이디(LED) 조명이 부착돼

중후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한다.

야광봉, 미러볼 등을 활용 가능한 ‘츄파티’ 아이템 상품은 어떤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티나’는 양대수 대한민국 식품명인(추성주·죽력고)이 출시한 젊은 감각의 술이다.

전통주에 거부감이 없는 과일맛을 접목하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엠지(MZ) 세대에서

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티나’는 2019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기타주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추성고을에선 티나 외에도 시원한 하늘색이 특징인 멜론과 코코넛 맛 ‘트 깔롱’, 산뜻한 산호빛의 백향과 맛 ‘미스반달’ 등 전통주를 재해석한 주류를 선보이고 있다.

‘티나’는 담양 추성고을 판매장에서 750ml(미리리터) 1병 기준 4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보험료	급여비	배율
5월	240,833원	420,000원	1.7배
4월	125,531원	210,000원	1.7배
3월	79,147원	135,000원	1.7배
2월	48,103원	80,000원	1.7배
1월	26,697원	45,000원	1.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Pension Corpor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